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주 은 선 조 병 주 이 현 정[†]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근 결혼이주여성들 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적응상의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이 밝혀지면서 상담 및 복지현장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서비스 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상담 경험에 대한 관심이나 학문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상담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상담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다섯 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현상학적인 분석절차를 거쳐, 이들의 상담체험은 어떠한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자료 분석결과 18개의 주제와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달라지고자 함: 남편과 잘 지낼 방법을 찾으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음.>, <알아차림: 남편에 대해서 알게 됨, 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됨, 나를 돌아 봄.>, <변화를 위해 애씀: 나를 변화시킴, 아이를 다르게 대함.>, <마음 붙일 곳이 생김: 친정 같은 곳, 현실적인 판단, 경계선이 없음.>, <달라짐과 한계: 달라지는 모습들, 체화되지 않음, 혼자서 해야 하는 부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또 다른 기대: 아이들을 위한 배울 기회, 일할 수 있게, 맞춤 서비스,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상담, 내담자 상담체험, 현상학적 연구

[†] 교신저자: 이현정,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330-70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5
Tel: 041-550-2925, E-mail: hjlee2003@bu.ac.kr

한국사회는 매우 단기간에 세계화와 함께 진행된 국가 간 인적 교류의 확대로 인한 다문화화를 겪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건수보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6년 현재 국제결혼 중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90.8%를 차지하여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 2008년 현재 총 결혼 이민자 12만 6천 155명 중 남자가 1만 5천 323명(12.1%), 여자가 11만 832명(87.9%)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09).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서, 2000년대 초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변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문화 가정¹⁾은 결혼이주자 본인의 한국문

1) 다문화 가정은 결혼이민자 및 관련법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다문화가족 지원법, 2008),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가정, 새터민 가정이 이에 속한다(송미경 외, 2008).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 가정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세 부류의 가정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빠른 증가 추세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결혼이민자를 다문화가정이라고 용어를 바꿔 사용하는 것에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어 있다. 2003년 3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는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는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큰 호응을 얻게

화에 대한 적응은 물론 새로운 문화 배경에서의 자녀의 양육과 성공적인 발달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는 본질적인 속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 내에서의 인격적 무시와 부부폭력과 같은 인권유린의 문제(광주여성의 전화, 2004; 윤형숙, 2004;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경제적 어려움(설동훈 외, 2005; 김오남, 2006), 교육과 학교에서의 적응 등을 포함한 자녀 양육 문제(보건복지부, 2005; 교육부, 2006),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남편 및 시부모와의 갈등(강유진, 1999; 윤형숙, 2004; 김오남, 2006; 김이선 외, 2006; 한건수, 2006; 홍달아기·채옥희, 2006, 박정숙·박옥임·김진희, 2007), 등과 같은 적응상의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거나 무언가 배우려하기 보다는 아는 만큼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냥 당하거나 참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설동훈 외, 2005), 문제 해결을 돕는 지원의 부재 속에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이들의 심리적 건강은 위협되고 더 나아가 자녀와 남편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족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적극적인 모색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다차원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되어 관련단체에서 결혼이민자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정을 사용하고 있다(조영달, 2006).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적 개입은 이들의 적응상의 여러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결혼이주 여성과 남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수요 조사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의 다수가 국제결혼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는데(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이는 결혼이주성과 가족에게 있어 상담의 요구가 큰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 대한 논의에 있어 다문화 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에 대한 고찰은 이들에 대한 상담적 개입을 하는 데 있어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다문화 상담은 상담심리학에서 교차 문화적 상담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였는데 교차 문화적 상담은 주로 백인 상담자가 소수민족 내담자를 상담하는 소수민족 상담을 의미하였다(박외숙, 1996). 이 시기에 유럽중심적인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기존의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들이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내담자들에게 적절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다문화적 안목을 가진 상담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상담자들은 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종 및 민족이 일치하지 않는 문화적 차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한재희, 2004). 그러나 이후 동일한 문화적 집단 내에서도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성 등에 상관없이 상담의 기법이나 전략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고 교차 문화적 상담은 점차 민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서 동일 민족 내에서

도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나타나는 모든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를 포함하게 되었고 이에 다문화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²⁾

다문화 상담은 각각의 문화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지배적인 문화가 아닌 그 자체의 문화에 근거해서 이해되어야 하고, 사람들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때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구성주의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Ivey et al. 1997).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문화가 서로 다를 때 나타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내담자의 문화의 개념 안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화적 배경,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상담의 이론과 적용기법에 있어 문화적 유연성에 따른 특성을 적용하는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송미경, 2008). 다문화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친밀한 상담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상담관계에서 여러 긴장과 갈등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한재희, 2004). 다문화 상담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 논의가 우리보다 먼저 진행되어 왔던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화적 역량은 상담, 정신보건, 사회복지 분야 등 다양한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각 분야가 갖는 가치나 윤리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으며(NASW, 2002),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는 상담자와 내담

2) 이와 같이 다문화 상담은 동일 민족 내의 문화적 차이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 가정(결혼이주자)을 위한 상담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다문화 상담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자 간의 상담관계의 질에 문화적 역량이 갖는 중요성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다문화 상담 선행 연구의 초점은 주로 다문화 상담의 효과성에 맞추어져 있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문화·언어의 일치,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 양식, 관계 형성 양식 등이 서비스 중도 탈락을 감소나 병리화를 막을 수 있다(D'Andrea & Heckman, 2008; Sue et al., 1991; Flaskerud, 1991; Atkinson & Lowe, 1995)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의 다문화상담관련 연구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다문화 역량, 다문화 상담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점차 현상학이나 내러티브 등의 질적 연구 접근을 활용한 심도 있는 다문화 배경의 사례연구로 진행되고 있다(Samuel, 2009, Weerasinghe & Number, 2010). 국내의 경우, 최근에서야 다문화 상담관련 연구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나 양적인 기초 실태조사 정도가 대부분이다.

다문화 상담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인데 이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Cross와 그의 동료들은 문화적 역량을 다문화적 서비스 환경에서 서로 다른 문화, 언어, 계층, 인종, 민족, 종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의 문화적 차이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능력(Cross, Bazron, Dennis, & Issacs, 1989)이라고 정의하였다. 문화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McPhatter, 1997; Sue & Sue, 2003; NASW, 2002)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문화적 역량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첫째, 문화적 인식으로 실천가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기 인식과 타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다. 둘째, 다양한 문화와 집단에 대한 지식으로 내담자 출신 국가의 사회·종교·세계관·의사소통 양식 등과 같은 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셋째,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입 기술로 기존의 이론과 개입 전략들이 내담자의 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함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최근 한국사회가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특히 현재는 다문화 상담이 전문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최근 다각도에서 전문적인 다문화 상담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한국가족상담협회, 2011).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다문화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 관점에서 본 다문화 상담자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적, 전문적 현장 경험과 고민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상담가로서의 정체성 혼란, 내담자와 관계 양상, 고립감·외로움 및 소진을 보고하고, 다중 업무 수행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는 내담자의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적 인식 및 지지는 미흡하고 따라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지지 체계, 다문화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화 교육, 통합적인 조율을 통한 업무 효율성 확보를 보고 하였다(주은선, 이현정, 2010).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상담가로서의 한계를 보고하

고 있고 다문화 상담자라면 특수한 역량을 갖추어야 함 등을 호소하였다(강기정 · 이혜자, 2009).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문화 상담이 아직 전문적으로 정착하고 있지 못하며 전문가들의 정체성 혼란, 고립감, 다중업무 수행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2008년까지 발간된 2,900개의 다문화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임은미 외, 2009)에 의하면 다문화 상담연구는 주제 면에 있어서 주로 다문화 집단들의 결혼 조력을 위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결혼이주여성자들의 실태조사 및 정책(설동훈 외, 2005; 신재근, 2009), 적응(이은희, 2009; 최근혜, 2005; 한건수, 2006), 부부갈등(김오남, 2006) 및 문화적응스트레스(권구영 · 박근우, 2007; 노하나, 2007; 양옥경 외, 2009; 이은혜, 2009)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다문화 상담을 경험한 내담자들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사회에서의 전문적인 다문화 상담의 정착을 위해서 상담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담자로서의 경험은 아니라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나, 다문화 가정의 부부관계 고찰연구, 다문화 가족의 가족치료사례연구 등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체적인 요구나 고민 등을 짐작할 수 있다(박태영, 은선경, 2010; 신희천 외, 2011; 양옥경 외, 2009).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 중에서는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 문화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직업 훈련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사회적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으로는 직원과의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에 모국어 상담지원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양옥경 외, 2007). 즉,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교육서비스와 언어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욕구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부부관계 고찰을 위한 한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역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문화적 이해, 경제적 문제, 부부갈등, 시댁 및 가족 갈등, 육아문제, 사회적 편견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부부갈등의 원인은 문화 및 생활방식, 자녀교육 방식, 성격차이, 배려 및 존중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부부싸움 방식을 말다툼을 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한 화해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희천 외, 2011). 이 연구에서는 부부상담의 경우, 남편의 참여를 도모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갖는 어려움을 남편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 가정이 갖는 문화적 특수성 이외에도 부부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갈등 내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에 착안을 하고 다문화 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상담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주제는 일본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다문화가족의 가족치료 사례연구에서도 제시하고 있다(박태

영·은선경, 2010). 이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노출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즉 결혼 기간이 8년 정도, 그리고 사례의 특수성 (결혼이민자의 한국학 전공)등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다문화가족 사례와 달리 일반적인 한국의 가족들과 동일하게 접근하여도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결혼 2년 미만의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고, 가족에 따라 언어적 문제, 이중문화 적응의 높은 스트레스, 가정폭력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고 상담자가 문화적 유연성의 특수성을 갖추고 있을 때 효율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다. 다문화 상담자의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다문화 역량에서 강조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유연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보편성은 일반 상담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특수성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자들은 다문화 상담에서의 특수성은 다양한 상담사례를 많이 접하고 내담자의 경험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얻어지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방안은 최근 실시된 많은 다문화 관련 연구에서도 추후 연구로 제안을 하고 있다(양옥경 외, 2007). 몇몇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는지 등에 관한 심층인터뷰 방식을 활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할 것”을 논의의 부분에서 대부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상담 연구가 이제까지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인식조사나 실태조사 정도였으나 여기에서 벗어나 심층적인 경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다문화 상담을 경험한 대상자들의 상담체험은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본 질적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질적 연구가 본 연구주제에는 적절한데, 이는 질적 연구가 사회적 또는 인간의 문제를 탐색하는 독특한 방법론적 연구전통들에 기반을 두어 이해하는 연구과정으로 연구자는 복잡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구축하고 언어를 분석하며 정보제공자들의 구체적인 시각을 보고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조홍식 외, 2005). 연구자들은 그 연구주제에 대한 해석적, 자연주의적 접근을 포함한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물을 연구하며,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의미에 대해 현상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질적 연구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이고 문제가 되는 순간들과 의미를 기술하는 다양한 경험적 재료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수집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험은 어떠한가의 연구문제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데 질적 연구에서는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시작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최초의 탐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술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상담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상담체험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문화 상담자들에게 특수성과 더 나아가 유연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다문화 상담종사자들이 어떠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지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의 상담의 정의에 관한 부분을 명료하게 하고자한다. 이 연구에

서는 상담을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통찰하여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주은선 역, 2001). 상담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자 상담자와 내담자는 합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상담자는 변화를 촉진시키며 내담자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생의 지침을 발견하며 변화를 도모하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건전한 인간관계, 내적인 성장, 실존의 문제, 가치 있는 기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상담은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상담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상담은 물론 부부 상담프로그램,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을 포함한다는 것을 밝힌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상담 정착을 위해 상담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상담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자 한다. 상담을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내담자인 결혼 이주 여성들의 상담 경험에 관한 이러한 심층적인 자료는 국내에서의 좀 더 전문적인 다문화 상담의 정착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험은 어떠한가?”,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 및 참여자 소개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다문화 가정 분포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진 서울과 충남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24곳의 상담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전화 연락을 통하여 연구 목적을 밝히고 협조 요청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에 협조를 구한 이유는 다른 서비스 주체들에 비해 위 기관이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대표적 가족지원전달체계라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3회기 이상 상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이었다. 그러나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면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센터나 복지관의 통역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더라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과정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1) 상담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기관이 많았고, 2)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대부분 위기 상담이나 연계 상담과 같은 단발적 상담 위주여서 참여자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3)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있더라도 연구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그 이유였다. 단회성의 위기상담이나 연계 상담 위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상담 현실과 이로 인한 참여자 선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험을 연구하는 것이 향후 이들에 대한 상담의 방향과 질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가명)	연령	출신국	한국 체류기간 (결혼기간)	최종 학력	자녀 수	참여 상담프로그램/ 참여 회기 수	직업
보라씨	35	중국	6년(6년)	고졸	딸 2(5세, 4세)	부부집단상담(아내만)/ 6회기 부모-자녀 미술치료/ 4회기 부모-자녀 놀이치료/ 4회기	없음
분홍씨	39	중국	6년(6년)	고졸	딸(6세)	개인상담/ 3회기	있음
초록씨	24	베트남	1년(1년)	중졸	없음	부부집단상담(함께)/ 6회기	없음
연두씨	40	일본	10년(10년)	전문 대졸	아들(9세), 딸(7세), 아들(5세)	부부집단상담(아내만)/ 6회기 부모-자녀 미술치료/ 4회기	있음
하늘씨	32	인도 네시아	8년(7년)	고졸	아들(6세), 아들(4세)	부부집단상담(아내만)/ 6회기 미술치료(자녀만) / 4회기	있음

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3회기 이상 상담 서비스 이용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관 연락과 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한 사례를 소개받는 작업은 2011년 6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다섯 명의 연구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20대가 1명, 30대가 3명, 40대가 1명이었고, 한국 거주 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였다. 참여자들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1명, 자녀가 하나인 경우가 1명, 둘인 경우가 2명, 셋인 경우가 1명이었다. 이들이 참여한 상담 프로그램은 개인상담, 부부집단상담, 부모-자녀 미술치료, 부모-자녀 놀이치료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한 참여자 면담은 2011년 7월에서 8월 초까지 참여자 별로 1회~2회 이루어졌고, 시간은 60분에서 90분 정도가 소요

되었다. 면담의 진행은 연구자들이 만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요 질문내용은 표 2와 같다. 면담은 참여자들이 익숙한 곳인 센터나 복지관의 상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이 원할 경우 센터의 팀장이나 통역사가 함께 면담에 참여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요한 경우 이들은 참여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하여 통역 또는 부가적인 설명을 해 주었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위해 축어록으로 전사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상호주관성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일련의 반성(reflection)과정, 즉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방법(신경림 외, 2004)에 따라서 수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표 2. 면담 질문 내용

1.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상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기대(바라는 점)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3.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4. 상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5.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상담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7. <**센터>는 선생님께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분야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이외에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에서는 심리학자로서 현상학적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Giorgi의 기술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따르고자 하였다. Giorgi(1985)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필수적인 단계를 포함한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 인식단계이다. 연구자는 전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 내용을 여러 번 읽는다. 두 번째 단계는 심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중점을 둔 의미 단위를 구별해 내는 단계이다. 전체에 대한 인식이 파악되면 연구자는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둔 “의미 단위”, 즉 주제를 도출한다.

세 번째 단계는 연구 대상자의 일상 표현을 연구 중인 현상에 중점을 둔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변형은 반성(reflection)과 상상의 변형(imaginative variation)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규명된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참여자의 경험이 의미하는 “중심 의미”, 즉 범주를 연구자의 언어로 기술한다. 네 번째 단계는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구조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는 단계이다.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변형된 의미 단위 속에 포

함된 통찰을 그 사건의 심리학적인 구조에 대한 일관적인 기술로 통합하고 종합하는 것이다.

위의 과정을 따르면서 연구자들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원 자료를 반복하여 읽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 개인의 독특성을 포괄하면서 전체 연구 참여자의 체험을 일반적 구조적 진술로 통합하였다.

연구자의 준비도 및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모두 현상학 혹은 합의적 질적 연구법(CQR)과 같은 질적 연구 경험이 있으며, 다문화 상담 관련 연구 경험 혹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연구 진행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타당도, 신뢰도, 중립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첫째,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 중에서 원활한 한글 이해가 가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참여자 검토(member check)를 부탁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

로부터 ‘연구 결과가 자신은 물론 결혼이주 여성의 상담체험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둘째, 연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외부의 질적 연구경험자에게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셋째, 연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연구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믿음, 사전지식, 편견 등을 미리 나누어 현상학적인 괄호 치기(bracketing)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험과 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본 장에서는 Giorgi(1985)의 현상학적 분석절차에 따라 수행된 연구결과, 즉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험의 내용과 체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험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Giorgi의 분석절차에 따라 수행한 결과, 모두 111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이 의미단위들에 대하여 현상학적인 반성(reflection)과 상상의 변형(imaginative variation) 과정을 거쳐서 참여자의 경험이 의미하는 중심의미(focal meaning), 즉 18개의 주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다시 6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각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은 <달라지고자 함>, <알아차림>, <변화를 위해 애쓰>, <마음 붙일 곳이 생김>, <달라짐과 한계>, <또 다른 기대>이며 각 범주에 해당되

표 3.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험

범 주	주 제
달라지고자 함	남편과 잘 지낼 “방법을 찾으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음
알아차림	남편에 대해서 알게 됨
	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됨
변화를 위해 애쓰	나를 돌아 봄. “내가 너무 했나?”
	나를 변화시킴. “나부터 바뀌야”
마음 붙일 곳이 생김	아이를 다르게 대함. “노력”
	“친정 같은 곳”
	현실적인 판단. “마음이 풀리는 것”
달라짐과 한계	“경계선이 없음”,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
	달라진 모습들
	“체화”되지 않음
또 다른 기대	“혼자서” 해야 하는 부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아이들을 위한 “배울 기회”,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일할 수 있게”
	“맞춤 서비스”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는 주제들은 표 3의 내용과 같다.

범주 1. 달라지고자 함

결혼이주여성이 상담에 참여하게 되는 초기 과정은, 주변 사람들의 정보제공이나 권유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이들이 최종적으로 상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는 달라지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한다. 즉 이해되지 않는 남편과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걱

정하는 마음을 다 잡고 아이를 좀 더 잘 키우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상담에 오게 된다.

남편과 잘 지낼 “방법을 찾으러”. 결혼이라는 사회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한국에 온 참여자들은 이들의 한국생활의 근간인 결혼생활,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녹록치 않고, 심지어 폭력이라는 위기에 봉착하기도 한다. 술 담배를 좋아하고, 아내를 도와주지 않고,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살아내야 할 곳은 바로 이곳, 한국이기에 “방법을 찾으러” 상담에 온다.

그때는 하도 저희 애기아빠가 술, 담배를 좋아해요. 내가 하라는걸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집에서 남자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알았어.’ 하고 2-3일가요. 일주일씩 지나가요. 막 뭐라고 하면 신경을 안 써요. 술, 담배도 적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둘이 싸움밖에 안하고 ... 둘이 안 좋더라고요. (보라씨)

남편이 술이 자주 먹어서. 술을 먹고 나서 집에 와서 뭐 밤늦게 까지 와서 자꾸 ‘마십시다.’ 하고, 막 막말해요. (초록씨)

우리 남편이 많이 때렸어요. 근데 경찰아저씨 우리 집에 왔어요. (중략) 우리 남편이 혼났어요. 제가 울어서(울면서)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중략) 경찰아저씨 ‘가서 여기서 센터 가봐라. 가서 방법이 있나 가봐라.’ (중략) 그날 다음날 제가 여기 왔어요. (분홍씨)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음. 자녀 양육기에 있

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아이가 “불안해하고 많이 우는 것”이 걱정되고, 아이가 “다른 한국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자 하고, 아이들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엄마가 함께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문제를 느끼고 방법을 찾으러 상담에 오게 되는 부부 문제 상담과는 달리, 자녀와 관련된 상담은 “잘 하는지 모르니까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예방적인 성격을 띠는 것도 볼 수 있다. 양육자로서 자신을 점검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상담 동기는 매우 능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집에 전화가 왔어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뭐 프로그램 있다고 ... 부모교육하는 거는 ... 그냥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웃음) 그냥 받아 놓은 거 같아요. (웃음) 미술치료는 하고 싶었어요. 가운데 아이가 조금 힘들어요. 불안해하고 ... 많이 울고 ... (연두씨)

혹시 다른 애들보다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 받아볼라고 하고. 미술치료 같은 거는 저희 이번에 큰일이 있었어요. 좀 마음정리도 하고 ...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한번 참석해본다고 해가지고 미술치료는 참석한 거예요. 애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엄마랑 같이하면 애들

더 좋아지지 않겠나. (보라씨)

범주 2. 알아차림

알아차림 즉, 무엇에 대해 안다는 것은 변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지 과정이다. 무관심하고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고, 자녀에 대해 걱정이 많았던 결혼이주여성들은 상담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의 욕구를 알아차리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를 알아차리게 된다.

남편에 대해서 알게 됨.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한 부부상담은, (초록씨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내만 참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 준 숙제를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숙제를 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때로는 ‘이런 걸 왜 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남편을 설득해야 하고, 때로는 남편이 기분 나빠 할까봐 숙제가 아닌 것처럼 “유도 하면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상담에 참여하고, 숙제를 하는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참여자들은 남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 또한 남편이 자신에게 ‘컴퓨터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남편이 오면 문을 열어 달라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남편의 욕구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음 ... 그러니까 상담에서 ... 우리 집에서 숙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신랑 ‘이런 거 왜 해?’ 그랬었어요. 하다보니까 계속 하다보니까 진짜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에 대해서 어 ... 만약에 싸운 일이나 ... 그 부부관계가 있잖아요. 그거 서로에 대해서 좀 알게 됐죠. 왜냐면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늘씨)

남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 저에 대해서도 ...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조금 더 알 수 있어서. 그러니까 숙제처럼 안하고 몰래 ... 다 기억해서 ... 이것도 해야 되는 데 어떻게 이렇게 ... 유도 하면서 ... 다 한꺼번에 물어보진 않고 ... 일주일에 한번이었으니깐. (연두씨)

남편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컴퓨터 많이 하지 않게. 음 ...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문 좀 열어 주라고. 남편이 문을 땡땡 하면 안에서 열어 달라는. (초록씨)

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됨. 결혼이주여성들은 엄마가 한국말을 못하는 것이 자녀의 인지발달에 저해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한국인 또래 아동과 비교한 자녀의 발달 수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녀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 엄마의 역할을 잘 해내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내 아이의 부족한 점과 잘 하는 면’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엄마로서,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화내고 짜증내니까 혼자 살고 싶은’, ‘엄마 아빠가 동생만 사랑해서 질투하고 있는’ 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

미술치료하고, 놀이치료 할 때 그게 좋더라고요. 다문화 가정 애들은 그런 게 많아요.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좀 잘 안되고. 그런데 ‘내 아이는 어떤 면에서 부족한 것 같다. 어떤 면에서 좀 잘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중략) 저희 딸이 집을 그렸어요. (중략) 제가 그렸어요. “미소야, 왜 너는 이 집에서 혼자 살아?” 그니까 “아빠는 만날 혼내고 엄마는 나한테 짜증만 내고.” 혼자 살고 싶대요. 그건 마음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깐 애들도 생각이 없다고 못 하겠더라고요. (보라씨)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저번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었어요. 우리 큰애가 좀 ... 엄마, 아빠는 동생한테만 사랑하고 자기한테만 막 ... 그런 식으로 질투해서 선생님한테 들어서 “어,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하늘씨)

나를 돌아 봄, “내가 너무했나?”. 아이의 속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은 참여자들이 엄마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자들은 ‘짜증을 많이 냈던’, ‘작은 아이에게만 애정을 표현했던’ 모습, 그리고 ‘같이 놀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은 변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

집에서는 그런 놀이를 안 해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너희들끼리 놀아라. 컴퓨터해라.’ (웃음) 그렇게 안 놀아줘요. 그래서 놀이치료 할 때도 애들하고 놀아보면, ‘나도 집에 가서 이렇게 놀아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 재밌어하니깐. 미술치료도 보니까 ‘내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걸 좀 많이 애들하고 ... 가끔씩 ‘사랑을 더 줘야 하지 않

겠나? 애들하고 놀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라씨)

범주 3. 변화를 위해 애쓰

변화란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생기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변화를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상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알게 되고, 자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참여자들은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지금까지 해 온 몸에 밴 습관적인 방식을 벗어 버려야 하는 의식적인 과정, 즉 달라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이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남편에 대해서 “나 자신부터 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실천하며, 아이에 대해서도 그 전과는 다르게 대하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

나를 변화시킴. “나 자신부터 바꿔야”.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남편을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나 자신부터 남편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바라지만 말고, 나 자신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서로 간에 싫어하는 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즉 상대에게 “맞춤“을 한다.

교수님(상담자)이 이야기해주고, 프로그램 종이에 적고, 부부간에 갈등이라든가, 적는 건데 ... 그거 할 때 좀 배운 점은, 내 자신이 ‘신랑한테 바라지만 말고. 자신부터 바꿔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부부사이도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만날 남편보고 이거하지 말라, 저거하지 말

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다 내가 바뀌가지고. 이제 이래서 (남편이) 하는구나. 내가 이해를 해야겠다? 그런. (보라씨)

선생님(상담자)이 그 부부 취미, 취미는 어떤지 하고, 음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그 점이 좋았어요. 상담 선생님이 음, 음, 부부 사이엔 아내가 이거는 싫다고 ... 남편이 맞춤하고, 남편은 이것 안 좋다고 하면 아내도 약간. (초록씨)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상담을 했던 분홍씨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 소리 안 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쓴다. 이것은 참여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포기”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남편과 더 이상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한편으로는 자립하고자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상담에 참여하기 전에는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들인데,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맞춤”과 “포기”를 통해서 결혼 생활의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면 상담 이후로 남편이 더 이상 폭력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요? 제가 아무 소리 없어요. 제가 아무 것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때리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 딸 아빠 와가지고 큰 소리 나면 제가 가만히 있어요. 아무 것도 안 해요 지금.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딸 아빠가 큰 소리 하면, 내가 (한국) 말 몰라도 막 싸웠어요. (중략) 제가 다 포기했어요. 돈 안주면 제가 지금 벌고 있어요. 그런데 못 벌면 제가 (웃으

며) 안 먹어요. 그렇게 해요. 지금 그래서 아무 소리 없어요. 그렇게 지금 딸 아빠가 나쁜 일 많이 줄었어요. (분홍씨)

아이를 다르게 대함. “의식적인 노력”. 상담을 통해서 자녀의 내면을 이해하게 된 참여자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전과는 다르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동생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던 “큰 아이를 먼저” 챙기고, 아이가 어린이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보살피고, “말을 잘 들어 주고”, “칭찬을 먼저” 해 주기도 한다. 상담에서 알게 된 아이의 상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엄마들은 의식적인 노력을 하며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배워나간다.

그래서 지금 큰 아들한테 좀 많이 ... (웃음) (신경써주고 계세요?) 그렇죠. 동생한테도 ... 그런데 아직 얘기라서 그런가, 귀엽잖아요. 애 아빠도 그러고. 그래서 프로그램 참석하고 나서는,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도 얘기한테만 “얘기야. 얘기야.” 그러면 “잠깐, 잠깐, 큰 애 좀, 큰애 먼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중략) 옛날에 그런 거는 내가 잘 안 물어 보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정말 많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하늘씨)

애들도 어 ... 엄마가 말을 잘 들어주니까 좋아하고. 칭찬 먼저 하고 나쁜 점은 이따가 하고 ... 하니까, 애들도 좋았어요. (웃음) (연두씨)

범주 4. 마음 붙일 곳이 생김

결혼이주여성들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

는 과정에는 상담자 혹은 센터가 이들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기에 가능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센터가 자신들의 “친정 같은 곳”이며, 상담이란 마음을 털어 놓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돕고, 마음이 정화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담자의 “경계 없이” 대하는 태도, 즉 외국인 이라고 해서 구별하지 않는 태도와 수용하는 태도를 보고 상담자를 믿을 수 있었다. 타국에 와서 외롭게 다방면의 적응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센터와 상담자, 그리고 상담은 “마음 붙일” 대상이 된다.

“친정 같은 곳”. 결혼이주여성들은 센터에서 한글을 배우고, 문화체험을 하고,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센터는 “학교”와 같고, 배움을 주는 “선생님”이 있고, 놀아주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다. 이들에게 센터는 자신들의 “사정을 다 아는” 곳, 그래서 “든든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마음의 의지가 되는 곳”이며, 내가 얻은 정보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물어 볼 수 있는 곳”이어서 마치 “친정 같은 곳”이 되는데, 그래서 센터가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현재의 “집보다 좋은 곳”이 되기도 한다.

음 ... 학교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친절하게 뭐라 그럴까, 친구 같기도 하고. (하늘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으면 알려주시고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웃음) 고맙고 다 사정도 아시니까. 너무 든든하게.. (연두씨)

진짜 많은 의지를 했어요. 그 때 왔을 때 이제 ‘아, 마음이 의지가 되겠다.’ 돈을 떠나가지고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곳이잖아요. (중략) 친정이 제가 여기가 없으니까 친정으로 생각을 하면 ... 그리고 제가 뭐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여쭙보고 선생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맞나요? 여쭙볼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보라씨)

집에 보다는 여기가 센터가 더 좋아요. 여기 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잘 해줘요. (초록씨)

현실적인 판단. “마음이 풀리는 것”. 참여자들은 상담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의 긍정적인 의미들을 알아간다. 상담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과 선택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며, “마음속의 이야기를 다 털어 놓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풀리는” 경험,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 한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상담의 참 의미를 알아 간다.

상담은 ... 나하고는 관계는 없다. 문제가 있는 사람만 받는 건지 알았어요. 특별하게 돈을 내서. (웃음) 그런데 상담은 상대방 이야기를 다 먼저 듣는 거지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인도해 주는 거. (연두씨)

상담이란 건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고민했던 거 생각에 있던 걸 다 이야기를 하고 나쁜 거나 좋은 점 다 이야기 할 수 있고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털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털어놔 가지고 이제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고, 그냥 지워버리는 거는 지워버리는 거고. 그런 게 상담이 아닌가 싶어요. (보라씨)

마음 알아주는 거 같은데 ... 그 다음에 마음 풀리는 거죠. 마음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밖에 없었어요. (하늘씨)

“경계선이 없음”,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 상담관계에서 ‘신뢰’는 상담의 성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신뢰관계 형성에는 상담자의 중재기법보다는 상담자의 태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상담자가 자신이 외국에서 왔다고 해서 다르게 대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하게 “경계가 없이 자연스럽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경계선이 없이 자연스럽게 상대를 해 주고 그런 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 ...외국에서 왔다고 좀 이야기를 하셔도 말이 이렇게 틀릴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이야기하는 ...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구나.’ 느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라씨)

범주 5. 달라짐과 한계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달라지고,

따라서 남편과 자녀들이 달라진 것을 체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달라짐이 일시적이어서 아쉽고, 혼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변화를 위해서 상담자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달라진 모습들.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 알아가고, 스스로 달라지려고 노력한 결과, 남편과 아이들이 달라진 것을 체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상담 후에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참여자의 건강을 묻기도 한다며 달라진 점을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 만큼 자신을 보호할 힘이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프로그램 받기 전에 남편이 집안일을 별로 안했어요. 그전에는 남편이 퇴근하면 자기 할 일만 했어요. 대화도 잘 안하고. 프로그램 받고 나서 집안일도 도와주요. 음 ... 같이 대화도 (같이 대화도 하시고) 집에서 피곤하냐고 그런 말도 해요 (초록씨)

전에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죽고 싶어요, 답답해서. 눈물 많이 나고 (눈물을 글썽임) 만날 똑 같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누구 ...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이해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는 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상담하고 나서는) 우리 남편을 용서해 줄 수도 있고 ... 지금도 또 때렸어요. 용서해 줬어요. (하지만) 다시 또 때리면 내가 용서 못해요. (분홍씨)

또한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상담시간을 기다리기도 하며, “동생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생각대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이야기 한다. 더불어 아이가 “불안해하는 게 없어지고, 혼자서 어린이 집에 가는” 독립심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상담은 내담자의 “알아차림”을 돕고, 그들이 변화를 위해 “애씀”으로써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 이제 ... 아, 엄마. 엄마 거기 언제 가냐고. (웃음) 엄마랑 같이하니까 애들이 좋은가 봐요. 잘하든 못하든, 그런 프로그램은 마음이 좋더라고요. (보라씨)

아이가 이해도 많이 했을 거 같아요. 어느 날 장난감 하나 갖고 놀았는데 얘기가 엉아꺼 자꾸 뺏어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애한테 찬찬히 얘기하면서, “얘기는 아직도 말 잘 못 알아듣고, 욕심도 많고. 하늘이는 장난감 옛날에 다 사줬잖아, 엄마가. 얘기는 갖고 노는 거 사준 거 하나도 없고. 엉아가 갖고 놀으니까 얘기 물려 받으면 되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중략) 만약에 심심하다가 갑자기 “엄마, 나 이거 만들게” 그랬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는데, 뭐 만들고 싶다고 그런 게. 인제 자기 하고 ... 그러니까 생각대로 하는 거죠. (하늘씨)

둘째가 좀 불안한 게 없고 ...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거든요. 7시 넘어서 나가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혼자 어린이집 가고 학교도 가고. 조금씩 씩씩해지는 거 같아요.(웃음) (연두씨)

“체화”되지 않음. 참여자들은 상담을 받는 동안에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변하는 게 느껴졌지만,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참여자 자신도 상담에서 배운 대로 계속하는 게 잘 안 된다. 참여자들은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몸에 베이게” 충분히 상담을 해 주길 원한다.

부부 상담을 좀 더 받고 싶어요. 상담 받는 중에 남편이 조금 변하는 것 같고, 끝나는 중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초록씨)

상담할 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거. 어 ... 남편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라고. (웃음) 그때그때 하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 (웃음) 그걸 계속 그렇게 하면 좋은데 ... 그 6주 정도 밖에 안 되서 좀 기간이 ... 변화될 때에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있고 ... 6개월 후에나 또 다시 (상담) 해주었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런 것도 체크 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머리에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웃음) 봐야 좀 아는데 ... 내가 몸에 베이게 좀 ... 길게 하던지 ... (연두씨)

“혼자서” 해야 하는 부담. 참여자들이 체험한 상담프로그램 중 부부상담은 대부분 아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근본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내만 하는 부부상담은 일시적인 성과는 있지만, 남편이 문제를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둘이” 함께 하는 부부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알아주기

“를 원한다.

부부교육인데 부부가 같이 안하고 하나
까 또 문제가 생기니까, 둘이. (남편분도
같이 하는 부부 상담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안하면 남편들끼리 모여서 ... (웃
음) 남편들 교육도 (웃음) 남편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꾸려고 하지만,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꿀 뭐 ... 내
가 문제구나 하면서 (연두씨)

남편도 교육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생활
교육 그런 거 ... 남편 왜 그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왜 결혼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엄마만 상담하는 거 아니고 신
랑이랑. 왜냐면 엄마만 배워서 뭐해요? 신
랑도 같이 있는 사람인데, 부분데 ... 서로
알아주면 좋겠죠? (하늘씨)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원칙적으
로 볼 때 심리상담은 내담자의 자각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
성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
과적일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를 바라기
도 한다. 상담자가 방법을 알려주길 원하는
것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의존
욕구가 높은 내담자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가진 욕구이기도 하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결혼생활과 양육, 적응 모두를 새로이
배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발달하는 과정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려
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해결 방법을 알려 주
길 바라는 일차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은 자연

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들은 한국에서 겪는 시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자녀가 여러 명 있을 때 어떻게 이들을 평등
하게 대할 수 있는지, “마음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이야기 한다.

답변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보
세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거를 좀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보라씨)

음 ... 그러니까 지금 마음 나누기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애기가 영아한테는
좀 막 다 뺏어갈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에 내가 하는 거는 애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 저번에
어린이 집 선생님이 그랬어요. 작은 아이
좀 그 불만이 많은 거 같다고. 좀 짜증내
고 막 그러고 ... “혹시 집에서 막내니까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애
기한테 너무 많이 해주나?’ 그러니까 좀
마음 나누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아 ...
마음 나누는 거 못하겠어요. (하늘씨)

범주 6. 또 다른 기대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
은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자녀를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상담기
관에서 도와주기를, “아이들을 위해서 배울 기
회”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였고, 자녀가 “행
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보살핌도 희망하였다. 이들에게 자녀문제는 결혼 생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 개선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하였으며, 자신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서 상담이 “맞춤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자신들을 대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아이들을 위한 “배울 기회”, “행복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결혼이주여성들도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 이들에게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의 발달과 욕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자녀의 공부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자 대부분은 자신들이 가진 언어적, 경제적인 한계로 인해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한다. 그래서 결혼이주 여성들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스스로 배워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없어서, 그리고 경제력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정보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 엄마들처럼 이것저것 다 가르칠 수 없어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길 바라고,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공부도 잡아주면 좋겠고, 아이들이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양한 예체능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원한다. 나아가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상처를 보살피 주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어렵게 덧붙인다.

저는 지금 제가 애들 키우니까 저는 거의 애들 쪽이에요. 애들 키우면 제가 외국에서 왔으니까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했는데 ... 복지관 쪽에서는 저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아 이런 데서는 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귀찮이라도 해줬으면 ... 다른 일로 바쁘겠지만,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라씨)

미술치료 같은 것도 계속 해주시면 좋고요. 애들 공부를 ...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썩크빅 교육 같은 거 선생님들이 해주시는데 그것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뒤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면 좋겠어요. (연두씨)

우리 딸이 ‘엄마는 못 해.’ 그렇게 ... 너무 미안했어요, 솔직히. 만약에 한국 엄마는 똑똑해서 딸이 더 똑똑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무슨 발레 있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 딸 너무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돈 너무 비싸서 ... 한국 아이들 보다(처럼)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 도와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말고 아이들은 앞으로는 무슨 능력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도 엄마들 가서 이거 시켜 저거 시킬 수 없어요. 한국 아이들은 너무 엄마가 아빠가 많이 시키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렇게 여러 가지 시키면 좋겠어요. (분홍씨)

제가 한글도 배우고 싶고 했는데(배우긴

했는데) 근데 입장 내 생각이라서 애들 문제 있죠. 왜냐면 제가 조금밖에 못 가르치는데, 자신 있게 가르쳐 줘야하는데 그것도 못하잖아요. 공부 같은 것도 뒤쳐지지 않게 많이 봐주면 좋고. (침묵)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아기가 친구들한테 놀리거나 그래서 엄마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 한국 사람 아니어서 그런 거두 상처가 됐나 안됐나 잘 모르죠. 아이들한테 좀 행복한 생각 ... 아이들이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혹시 상처받거나 그러면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늘씨)

“일할 수 있게”.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 여성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상담기관에서 취업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과 특정한 기술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고, 일자리 구하는 것, 이력서 쓰는 법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 바란다.

취업분야요. 제가 원래 노인, 어르신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을 하고 싶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외국인한테는. 한국 능력시험 그게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연두씨)

애를 다 키우면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미용일 배우고 싶더라고요. 배워서 봉사도 하고 싶고, 직장을 다니면 나중에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요. 돈 내고 배울 수도 있지만 나는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여쭙봤더니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그걸 배울 기회가 있으면 찾

아가고 싶어요. (보라씨)

일자리 구하기 그것도 ... 왜냐면 외국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다음에 이력서 어떻게 하는지 안 되잖아요. 일자리 필요하잖아요. 언제까지 얘기만 키울 수는 없잖아요. (하늘씨)

“맞춤 서비스”.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가 능통하지 않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 때에 접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결혼이주 초기에는 상담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정보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과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 즉 심리적인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상담자로 만나기를 원한다.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상담할 때 표현의 한계도 있고, 정서적인 교류가 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상담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일 년이 되도록 이런 걸 몰랐어요. 어떤 분들은 알아도 안다니지만 .. 어떤 분들은 몰라서 안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면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리이러한 상담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 예. 어떠시겠냐. 필요하시면 오시요라는 그런 방문해서 요런 거 있다고 알려주는 거 좀 더 좋지 않겠나. (보라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중국 여자는 똑똑해져서 한국 가면 좋겠다. (웃음) (팀장님 부연설명 - 해당되는 언어로 상담하고 싶어

해요 다들. 그런 의미예요. 저희가 통역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전달 못 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통번역사들은 상담까지는 못해주다 보니까 그게 좀 상당히 어렵죠. 중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상담) 공부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분홍씨)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의사소통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상담자가 자신들이 언어적인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하고,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웃으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준다면 더 말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희망 사항을 이야기 한다.

이야기 할 때 좀 .. 차근차근하게 말씀해 주시면 ... 간단하게, 간단하게 ...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서. ‘아, 이 분이 한국말을 잘 모른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내용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심 되는 말에서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 하면 알아듣기 쉽겠나. 간단한 말로 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끔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보라씨)

상담자는 친절하게 하고, 그 사람(내담자)이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초록씨)

선생님 ... 좀 그냥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 말도 많이 하셔야 되고, 웃으면서 하시면 좋고. (웃음) 무섭

게 하면 진짜 자기 생각대로 안 나오니까. (연두씨)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험의 의미

Giorigi의 기술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르면,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참여자의 체험을 심리학적 구조에 대한 일관적인 진술로 통합하는 단계이다. 위에 기술 된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의 경험의 구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통합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부부문제와 자녀문제를 가지고 “방법을 찾으러”상담에 오게 되는데. 상담체험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는 물론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알아차림”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애씀”은 자신과 남편, 아이들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체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자서 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담을 통해서 변화와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맥락적 요소에는 이들이 기관과 상담, 그리고 상담자와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었기에 가능하다. 이들에게 상담, 상담자, 기관은 힘들 때 찾아와서 안정을 찾는 “마음을 붙일 곳”이 된다.

참여자들은 상담체험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상담에 대해 또 다른 기대를 갖게 되는데, 자녀들이 “배울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받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덜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한다. 또한 이들은 한국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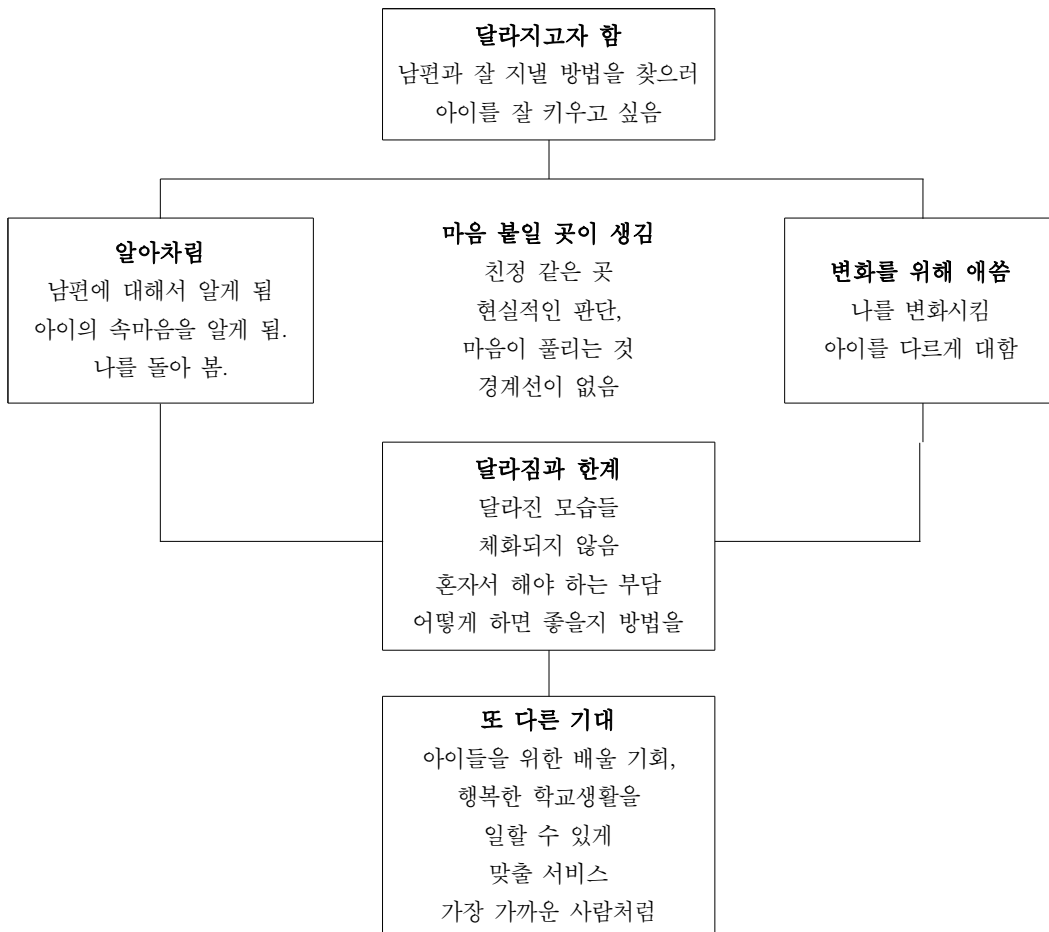


그림 1.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험과 그 구조

구성원으로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원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바란다. 아울러 이러한 상담서비스들은 자신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서비스”이기를 바라며, 상담자들이 자신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대해줄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험 내용과 그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위에 언급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상담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것을

“자각”하고 달라지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변화에는 한계가 있음도 자각하고 자신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기대”한다.

이러한 모든 자각과 노력, 기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상담체험을 관통하는 의미는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각과 노력, 그리고 기대”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논 의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험과 의미를 참여자의 관점에서 살펴 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상담이 그들의 적응상의 여러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하였고 보다 다양한 영역에 대한 상담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결혼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을 밝힌 서비스 수요 조사 연구 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와도 유사한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해 사회적 지원체계가 더불어 상담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현장에서의 상담에 대한 높은 요구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여러 측면에서 아직은 초기의 단계에 있는 분야이다.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다문화 상담은 언어적 제한의 극복, 광범위한 상담 영역,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역량을 지닌 상담 인력이 필요한 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은 공식적 시도가 아직 본격화 되지 않고 있고 전문가풀이나 전문기관과의 연계도 약한 것이 다문화 상담의 현실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그러므로 상담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문화 상담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을 본격화하고 현장에 있는 상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상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

로써 상담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상담적 개입에서 상담자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상담의 효과적 진행과 내담자의 변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담이론이나 기법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Skovholt, 2001; Corey & Corey, 2002)이라는 상담의 독특성과 연관된다. 상담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상담자의 자질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경계선 없이, 한국인인 상담자와 다르지 않은 존재로 대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상담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화적 이질감·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질을 이상적인 상담자의 요건으로 꼽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지적한 상담자의 이러한 자질들은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 상담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되어 온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상담, 특히 상담자-내담자 간의 상담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며 이는 서비스 성과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 대상 상담의 활성화와 더불어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자들에게 문화적 역량 개발을 위해 보수교육 과정을 통한 교육과 훈련 기회의 제공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선행 연구들(최원희 외, 2008; Linda G. et al., 2007)에서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이 시사된 바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상담 프로그램 참여 동기, 필요한 상담 분야는 다양하였지만 그 중 자녀 양육과 관련된 상담 욕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부모 경험에 주목하고 부모 됨과 관련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담적 개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이해 증진, 양육 태도와 양육 방향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도움, 자신의 부모 역할에 대한 점검 등을 상담 참여에의 긍정적인 성과로 지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 양육·부모 됨과 관련된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적 욕구는 자녀 양육기에 있는 자국민에게도 관찰될 수 있는 일반적 문제일 수도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부모 됨 경험과 자녀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부모 됨과 자녀는 심리적 위안이 되고 한국사회에의 귀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녀는 낯선 나라의 버팀목이며(윤명숙·이혜경, 2011) 한국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확인시켜 주고(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이주자로서의 이중 삼중의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강기정·이혜자, 2009)는 선행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부모 됨과 자녀 양육은 단순한 역할의 변화뿐 아니라 문화적응, 한국사회에서의 정체성 등과 같은 심리적 요소를 동반하는 영역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 됨과 자녀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심리적 위안이 되고 한국사회에의 귀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자국민 모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민으로

서 본인의 한국 사회에의 적응이라는 과제와 사회적 배제와 소통의 부재라는 상황적 요인이 이들의 부모 됨과 자녀 양육의 경험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전형적 자녀의 육아시기는 모의 문화적응시기와 겹치며 이주민으로서 사회적 지지 체계나 정보가 부족한 현실적 상황은 이들의 부모 됨 경험과 관련하여 자국민 육아시기의 여성에 비해 혼란과 자녀 육아의 고충에 대한 외로움, 두려움,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 상태를 가중시킬 수 있다(송미경 외, 2008).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학습지도도 어렵고 자신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녀들의 지적 성장이나 언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을까 봐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보통의 한국인 엄마처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무능력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오성배, 2007) 이러한 어려움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미안함,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자신에 대한 무능력감, 이로 인해 자녀관계에 벽이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송미경외, 2008) 등과 같은 그들 내면의 심리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특히 부모 됨과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은 결혼이주여성에게 더욱 더 큰 심리적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다. 자신의 언어적, 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부모 됨과 자녀 양육은 큰 부담이며

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역할을 채워 줄 수 있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 기대해 보지만 남성 중심적 문화와 가부장적 사회체제의 영향으로 양육의 부담과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양육의 혼란스러움과 버거움을 느끼게 된다(윤명숙·이혜경, 2011). 또한 가족 내의 문제나 가족 성원의 문제가 어머니 잘못과 부족 때문이며 어머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어머니에 대한 비난적 태도’가 깊숙이 깔려 있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됨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기에 교육이 사회적 계층 이동의 중요한 수단이며 자녀의 교육적 성취가 어머니의 능력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한국사회의 인식(윤희미, 2009)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체감과 유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부모 됨에 대한 소양, 자녀양육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됨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에서는 ‘자녀양육기’에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정책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임신·출산’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문화적응을 위한 교육이나 서비스 제공 시에도 부모 역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체계적 학습의 기회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윤명숙·이혜경, 2011). 부모 됨과 자녀 양육에 관련된 참여자들의 경험과 상담 욕구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적응과 심리적 건강을 위해 교육을 비롯한 상담

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하는 부분이다.

셋째, 위에서 지적된 부모 됨과 자녀 양육에 관련된 상담과 더불어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상담에서 궁극적으로는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기반의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 결과 중 특이한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내면에 대한 관심은 거의 부재한 반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에의 욕구는 매우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부모 됨과 자녀 양육은 단순한 역할의 변화뿐 아니라 문화적응, 정체성 등과 같은 심리적 요소를 동반하는 영역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할 때 이를 돕기 위한 상담의 제공은 본 연구 참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결혼이주여성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자녀 양육기 이후에 다양한 생애주기와 이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쟁점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성공적 적응은 가족 내에서의 부모-자녀 체계뿐 아니라 개인·가족 차원, 지역사회 차원, 사회문화 차원에서의 적응을 포함한다고 볼 때 심리 상담이 일시적 문제 해결의 단편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뛰어 넘어 이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거시적인 개입의 성격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통찰력, 내적인 힘, 자기 효능감을 포함한 심리적 자신감과 행동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구체적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내담자 자신의 환경에 효과적, 창조적으로 참여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파워먼트 접근(Cohen, 1998; 윤희미, 2009

재인용)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에 있어 유용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되어 있는 취약 집단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긍정적 자아상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권한 강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발달시키는 과정이자 심리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영역에서 자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 임파워먼트 접근방법은 사회적 약자이며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독립적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유효한 심리 상담의 실천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윤혜미, 2009).

임파워먼트란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는 것, 혹은 힘을 주는 것, 그리고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이는 미시와 거시 수준에서 진행된다(Cowger, 1994). 미시 수준에서의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힘(power)이나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거시 수준에서는 지역 사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힘을 획득하고 참여를 실천하며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임파워먼트는 개인적, 대인관계 수준 및 사회·제도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써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생태 체계 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Gutierrez(1990)는 개인적 수준의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증가, 자기 비난의 감소, 집단 의식의 개발,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식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의 산물은 결혼이주여성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면, 임파워먼트에 기반을 둔 심리 상담은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문화적 주변인’ ‘약자’ ‘국제결혼의 희생자’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낮은 사회로의 이주를 선택한 도전의식과 주체성을 가진 능동적 존재로 인정하도록 도와 그들의 자존중감 회복과 정체성 확립과 같은 심리적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자녀 양육을 포함한 현재의 문제가 본인의 결함이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이주자로서의 특수한 상황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자기 비난을 줄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자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윤혜미, 2009).

결혼이주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임파워먼트 기반의 심리 상담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 능력의 회복 강화와 더불어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앞서 지적된 것처럼 임파워먼트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역량 강화 또한 포함하며, 개인이 지역 사회에 참여하여 주체적인 생활인이 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경제적·사회적 능력강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윤혜미, 2009). 다시 말하면, 사회 안에서의 존재감을 갖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에 긍정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상담 분야로 취업 상담을 지적했다는 연구 결과는 직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의 소속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는 임파워먼트에 기반을 둔 심리 상담은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환류적이고 예방적인 의미 또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삶의 초점이 자녀인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향은 가족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유아기 아동을 둔 어머니들에게서 관찰되는 일반적 사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 찾아가기가 불가능한 여건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고(윤혜미, 2009) 이러한 의존적 관계는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겨 주며 갈등을 야기 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발달과 정체성 형성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Kenney, 2002; Byrd & Garwick, 2004)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불안정감은 자녀에게 내면화되어 자녀들 역시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유발하게 될 위험이 크다는 선행 연구 결과(송미경외, 2008)는 결혼이주여성 자신에 대한 심리 상담은 거의 전무하며 자녀와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과 해결에 무게가 주어지고 있는 상담 현실에서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심리 상담의 중요성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내면적·심리적 이슈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중 언어·이중 문화 직원의 채용 및 통역 서비스 등의 현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혼이주여성 내담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힘을 획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강점 관점의 입장을 견지하는 상담자의 자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고되어야 한다. 서비스 기관에 바라는 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 참여 대상자들은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 제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적 한계와 사회적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지역 사회 안에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할 확률이 존재한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가 국가나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자원의 수혜 당사자들인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실제 서비스 이용 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상담욕구를 가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한국어와 자국어룰 구사할 수 있으며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인력을 서비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성부가 2006년부터 운영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긴급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초기부터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상담원을 교육·훈련하여 지역 센터에 배치하는 상담 인력의 양성(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은 상담 서비스 진입의 벽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험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대상 상담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의 결과가 포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연구 참여자들이 체험한 상담이 대부분 자녀와 부부관계에 관련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는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대표적 가족지원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상담이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주로 집단 프로그램 위주의 상담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되어 실제로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표집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다문화 상담 현장의 실정 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시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로 대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통역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체험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과 정서적 의미 전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어뿐 아니라 연구 대상자들의 모국어 혹은 영어로 의사표현을 하게하고 상담 참여 결혼이주여성들 중 보다 다양한 가족주기에 있는 대상을 표집 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대상 상담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충분히

다루어 지지 못했던 결혼이주여성들의 상담 체험에 대한 논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생활과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상담자들이 실천의 장에서 이들을 위한 상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 가능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기정, 이해자 (2009).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우리사회의 대응: 다문화가족 부부 및 자녀를 중심으로. 제 4차 국정포럼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자료집.
-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기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 광주여성의 전화 (2004). 광주·전남지역 결혼한 이주여성 실태 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들의 전화 부설 광주가정 폭력상담소.
- 교육부 (2006). 2006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권구영, 박근우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연구, 2(14), 187-219.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김은하, 박승민 (2011). 작업동맹에 관한 국내

-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25.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노하나 (2007). 중국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외숙 (1996). 다문화적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검토.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동계 연구 세미나 자료.
-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1.
- 박태영, 은선경 (2010). 다문화사족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일본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부부치료. 한국가족복지학, 30, 167-196.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방안. 보건복지부.
- 송미경 (2008).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상담의 모색. 여성연구논총, 23, 41-51.
-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다문화 가정 외국어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신재근 (2009).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 방안. 농협경제연구소, 2009 NHERI 리포트, 51, 1-21.
- 신희천, 최진아, 김혜숙, 이주연 (2011). 도시 지역 다문화 가정의 부부관계 고찰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299-322.
-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오성배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환경과 문제. 교육비평사, 22, 186-213.
- 윤명숙, 이해경 (2011). 농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됨을 통한 적응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32(6), 103-135.
- 윤희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pp.321-349). 한울
- 윤혜미 (2009).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85-108.
- 양옥경, 김연수, 이방현 (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8(6), 229-251.
- 이병준 (2007). 다문화역량이란 무엇인가? 한국교육사상연구회, 37, 1-11.
- 이은혜 (200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2009).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적응연구-탄력모델을 적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14(1), 73-94.
- 임은미, 정성진, 김은주 (2009). 국내 다문화 연구와 다문화 상담 연구의 현황. 상담학연구, 10(3), 1291-1304.
- 조영달 (2006).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2005).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주은선 역 (2001). *상담의 기술*. 서울: 학지사.
- 주은선, 이현정 (2010).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관련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17-846.
- 최금혜 (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4(1), 329-364.
- 최원희, 최혜지, 최연선 (2008). 다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문화적 유능감 실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6, 89-113.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국가족상담협회 (2011). *다문화 가족 상담. 2011 가족상담컨퍼런스 자료집*.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I)*.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재희 (2004). 한국의 가족문화와 다문화 상담. *진리논단*, 16, 117-133.
- 행정안전부 (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홍달아기, 채옥희 (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Atkinson, D. R., & Lowe, S. (1995). The role of ethnicity, cultural knowledge, and conventional technique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 J. G. Ponterotto, J. M. Casas, L. A. Suzuki, & C. M. Alexander (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counseling* (pp.387-414). Thousand Oaks, CA: Sage.
- Byrd, M. M., & Garwick, A. W. (2004). Family identity: Black-white interracial family health experience. *Journal of Family Nursing*, 12(1), 22-37.
- Corey, M. S., & Corey, G. (2002). *Becoming a helper*.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Cowger, C. D. (1994). Assessing client strengths: Clinical assessment for client empowerment. *Social Work*, 39(3), 262-268.
- Cross, T., Bazron, B., Dennis, K., Issacs, M. (1989). *Towards a culturally competent system of car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 D'Andrea, M., & Heckman, E. F. (2008). A 40-Year Review of Multicultural Counseling Outcome Research: Outlining a Future Research Agenda for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Move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6, 356-363.
- Flaskerud, J. H. (1991). Effects of Asian client-therapist language, ethnicity and gender match on utilization and outcome of therap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7, 31-42.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김미영, 정승은 공역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서울: 현문사.
- Gutierrez, L. (1990). Working with women of color: An empowerment perspective. *Social Work*, 35(2), 149-153.

- Ivey, A. E., Ivey, M. B. & Simek-Morgan, L. (1997).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multicultural Perspective*.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Kenny, K. R. (2002). Counseling interracial couples and multiracial individuals: Applying a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y framework. *Counseling and Human Development*, 35, 1-12.
- Linda G. Castillo., Daniel F. Brossart., Carla J. Reyes, Collie W. Conoley., & Marion J. Phoummarath. (2007).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training on perceived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implicit racial prejudice.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5, 243-254.
- McPhatter, A. (1997). Cultural competence in child welfare: What is it? How do we achieve it? What happens without it? *Child Welfare*, 76(1), 255-278.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2002). *NASW standards for cultural competence in social work practice*. <http://nasdc.org/pubs/standards/cultural.htm>.
- Samuel, E. (2009). Acculturative stress: South Asian Immigrant women's experiences in Canada's Atlantic province, *Journal of Immigrant & Refugee Studies*, 7, 16-34.
- Skovholt, T. M.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MA: Allyn & Bacon.
- Sue, S. & Sue, D. (2003).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Weerasinghe, S. & Number, M. S. (2010). A life-course exploration of the social, emotional and physical health behaviors of widowed South Asian immigrant women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Migration, Health and Social Care*, 6 (4), 42-56.
- 1 차원고접수 : 2011. 9. 30.
수정원고접수 : 2011. 12. 12.
최종게재결정 : 2012. 1. 27.

Qualitative Research on Counseling Experiences of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Eunsun Joo

Byungjoo Joh

Hyunjung Lee

Duksung Women's University

Baekseok University

With the recent rapid rise in the number of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there has been an associated increase in the occurrences and awareness of the problems these women face, as well as the provision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in many social welfare centers or other such facilities. However, despite their growing importance, there has been little interest paid to the counseling experiences of these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and even less research has taken place.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counseling experiences of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followed by a phenomenolog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five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in order to determine their counseling experiences and its meanings. The analysis reveal 18 themes and 6 categories: "Wanting to change: find ways to get along well with husband, want to raise their children well", "Awareness: understanding of husband, understanding of children's mind, self reflection", "Efforts to Change: changing self, changing approach to children", "Finding a place to form attachment: Own home, realistic decision making, no boundaries", "Change and Limitations: changing images, incomplete internalization, burden of doing it alone, responsive techniques", "New Expectations: Opportunities to learn for the children, opportunities to work, as someone who is the closest". Las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recommendations on improving the counseling programs for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are provided.

Key words :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multicultural counseling, client's counseling experience, phenomenological research